

# 브라질, 자동차산업 투자 “전력질주”

2008년 1-6월 생산량 세계 6위 등극 ... 한국은 208만대로 5위 차지

2008년 1-6월 브라질 자동차 생산량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Anfavea)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브라질 자동차 생산량은 169만대를 기록해 프랑스 157만대와 스페인 155만대를 앞서면서 세계 6위를 차지했다.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 1-5위는 일본 606만대, 중국 520만대, 미국 489만대, 독일 331만대, 한국 208만대 등으로 나타났다.

1-7월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만2000대로 전년동기대비 21.8%의 증가했으며, 판매량은 169만5000대로 30.4% 늘어나면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멕시코와 베네주엘라, 유럽 국가들의 주문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44만5500대로 3.3% 떨어졌다.

특히, 7월 내수가 급증하면서 생산량 32만100대와 판매량 28만8100대 모두 월간 신기록을 달성했으며, 수출은 6만4600대였다.

Anfavea는 2008년 말까지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342만대, 판매량은 24.2% 증가한 306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생산능력이 2008년 385만대에서 2009년에는 40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8년 49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도 확대돼 7월까지 자동차산업의 고용인력이 12만9400명으로 1990년의 13만8300명 이후 최대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8>